

# 朱點本 重刊老乞大諺解에 대하여

金 完 鎭\*

## I

奎章閣에 所藏되어 있는 重刊老乞大諺解는 都合 5部인데, 그 가운데 朱墨으로 傍點이 붙여진 異色的인 一本이 들어 있다. 나머지 네 部의 책들(圖書番號 2049, 2050, 2051, 3566)이 良質의 종이에 天地의 餘白이 넉넉하고 製本도 當當한데 比하여 이 문제의 책(圖書番號 4866)은 매우 초라한 印象을 주어 極히 對照的이다. 低質의 얇은 종이를 使用한데다 製册도 天地가 빠듯하고 保管 狀態도 좋지는 못하였던듯 缺張을 補寫한 곳까지 있다. (上卷 第65張) 그러나 版式自體는 다른 4部와 다를 바가 없어 兩者의 差異는 保存이나 內賜를 目的으로 한 豪華本(?)과 研究 乃至 教習에 쓰인 實用本의 差異가 아니었던가 싶다. 실상, 다른 네 部가 손때도 타지 않은 채로 깨끗이 保管되어 온 데 反하여 圖書番號 4866의 一本만은 앞서 말한 聲調表記의 朱墨點 以外에도 그 後에 붙여진 墨點들로 甚한 汚損을 입고 있다.

朱墨으로 加해진 聲調 表記가 果然 언제 누구의 손으로 된 것인지를 詳考할 길은 없다. 그저 漠然히 19世紀 初葉의(18世紀의 마지막 6年 동안일 수도 있다) 어느 譯學者의 정성 어린 作業의 結果리라고 推測할 수 있을 뿐이지만<sup>(1)</sup> 이 聲調 資料는 學界의 새로운 關心을 불러 일으키기에 充分한 存在라고 筆者는 믿는다.

이 資料의 價値는 두 가지 側面에서 얘기할 수가 있다. 첫째는 語學史的인 觀點에서의 評價로, 國語의 聲調 表記가 壬辰亂을 前後하여 廢棄되었음에도 不拘하고, 中國語 聲調의 表記를 위하여는 傍點이 19世紀까지 使用되었다는 事實을 確認할 수 있게 되며, 그 表記體系가 平·上·去·入 따위 聲調의 種類를 表示하는 四聲通攷的인 方式에 依한 것이 아니라 崔世珍의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國語의 聲調值를 基準으로 한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教授

(1) 重刊老乞大諺解에는 序文이나 跋文 또는 刊記가 없을뿐만 아니라, 이 책의 刊行에 대한 別途의 記錄도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그 正確한 刊年을 말할 수 없으나, 諺解의 母本인 重刊老乞大의 刊行이 正祖 19年乙卯(乾隆 60年, 1795)의 일이므로, 諺解는 같은 해 또는 그에서 멀지 않은 時期에 刊行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聲調의 朱墨表記는 1795年 以後의 어떤 時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밖에는 確言할 수 없으나, 19世紀 後半으로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다. 重刊老乞大諺解의 一本(圖書番號 3566) 上卷 表紙 오른 어깨 구석에 '乙卯重刊'이라는 墨書가 있는데, 이것이 諺解 自體의 刊年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重刊老乞大의 刊年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確實치가 않다.

中國語 聲調의 表記라는 體系를 採擇하고 있는 것을 確認함으로써, 崔世珍이 세운 表記傳統이 譯學者들 사이에서 繼承·發展되었던 것을 밝힐 수가 있다. 둘째는 純粹히 言語史的인 次元에서의 價値인데, 19世紀末 乃至 19世紀初의 中國語 聲調의 實際를 證言해 주는 資料로서 中國語 聲調의 史的 發達을 考究하는 데에 貢獻하는 바 多大할 것을 期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이 小稿에서는 主로 이 表記 資料가 가지는 語學史的 價値를 論하는 데에 重點을 두고, 中國語 聲調史 資料로서의 價値에 대하여는 筆者의 能力이 미치는 範圍 안에서 얼마간 例示하여 그 價値를 紹介하는 데 그치겠다. 그러나 이러한 態度는 오로지 國語學徒로서의 筆者의 本分을 지키려는 데서 오는 것이고, 이 資料가 지니는 第一義的인 價値는 中國語史 研究의 稀貴한 資料가 된다는 데 있을 것임에 틀림 없다. 多幸히 筆者의 紹介로 이 資料가 그 方面의 專門家들의 注意를 끌어 中國語 聲調史 研究에 緊要하게 쓰이게 된다면, 筆者의 目的은 그것으로 充分히 達成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寡聞의 탓일지 모르지만, 지난 時期의 中國語의 實際 聲調를 이만큼 誠實히 表記한 資料가 달리 存在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이다.

## II

翻譯老乞大나 老乞大諺解와 한가지로 重刊老乞大諺解도 上·下 두 卷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우리의 資料는 이 上·下卷 全體에 걸쳐서 漢字 하나하나에 克明히 聲調 表記를 하고 있다. 不幸히 뒤에 粗雜하게 加해진 墨點으로 말미암아 잘 分別하기 어렵거나, 또는 전혀 보이지 않을 程度가 되어 버린 곳이 相當數 있으나, 워낙 全體 分量이 넉넉한 處地이고 보면 이런 汚損을 입지 않은 部分만을 對象으로 하더라도 充分한 觀察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汚損된 部分들이라 할지라도 대개는 類例를 通하여 再構하는 것이 可能할 것 같아 보인다. 符號는 네가지가 쓰이고 있다.

· : ㄱ <

一點과 二點은 崔世珍의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 또는 奎章閣 所藏의 老乞大에 붙여진 藍點 또는 墨點에서 익히 보던 것이거니와, ‘가, 거, 기’에서의 ‘ㄱ’ 같아 보이는 갈구리표와 日本語 平假名の ‘<’字와 恰似히 허리가 꺾인 符號는 처음 보는 存在들이다. 點만을 利用하던 옛 體系에 있어서는 無點까지를 包含하여 세계의 符號로 中國語의 四聲을 表記하던 것인데(陰平：一點, 陽平：二點, 上聲：無點, 去聲：一點)<sup>(2)</sup>, 重刊老乞大諺解의 表記例는

(2) 老乞大의 一本(圖書番號 5158) 第一張 前面 欄外에 매우 興味 있는 注書가 發見된다.

一點學字 二點曳字 無點放字 學者於此宜潛心而玩矣

印刷된 文獻에서는 아직 대하지 못한 表現들이지만, 當時의 譯學者들 사이에서 通用되었던 名稱

이보다 두개의 符號를 더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덜 本質的인 差異지만, 새 體系에서는 옛 體系에서의 無點 表記를 止揚하여 反對 쪽에 一點을 加하는 手段을 講究하고 있다. 卽 陰平·去聲을 表記하기 위한 一點이나 陽平을 나타내기 위한 二點은 漢字 右側에 찍는 反面에 上聲을 表示하기 위하여는 左側에 加點하고 있는 것이다. 無點이던 加點을 얻은 境遇와 識別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視覺的으로도 無點보다는 左加一點이 더 効率的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一段의 發展을 보인 表記方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 登場한 두 符號의 正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論議하기에 앞서 純粹한 點表示에 能한 聲調 表記는 그 內容에 있어 옛 體系 그대로임을 確認해 두자. 例들은 翻譯老乞大와 重刊老乞大諺解에서 中國語 原文이 一致되는 處들에서 找되, 聲調 以外の 字音 表記는 繁雜을 避하기 위하여 省略한다. 一點, 二點, 無點은 各漢字 위에 아라비아 數字를 써서 '1, 2, 0'으로 表示하되, 다만 去聲 卽 第4聲이 一點으로 表示된 것은 陰平 卽, 第1聲이 一點으로 表示된 것과 區別하기 위하여 '4'로 表示한다<sup>(3)</sup>.

<sup>4</sup>1<sup>4</sup>4<sup>4</sup>4<sup>4</sup>  
 這三箇火伴 (5a)  
<sup>0</sup>4<sup>0</sup>1<sup>4</sup>4<sup>4</sup>  
 你這兩姨弟兄 (5b)<sup>(4)</sup>  
<sup>1</sup>4<sup>4</sup>4<sup>4</sup>4<sup>4</sup>4<sup>4</sup>  
 今日是二十二日 (8a)  
<sup>0</sup>4<sup>4</sup>4<sup>4</sup>4<sup>4</sup>1<sup>0</sup>4<sup>4</sup>  
 我自會的。不要你教 (10a)  
<sup>1</sup>1<sup>4</sup>0<sup>2</sup>  
 都一樣寫着 (2a)

‘你, 兩, 我’의 諸字가 上聲 卽 第3聲의 字들임은 分명한 일이고, 二點으로 表記된 ‘着’字가 陽平인 것도 틀림이 없다. 다만 第1聲과 第4聲은 區別 없이 一點으로 表記되고 있는데, 이것은 崔世珍 以來的 傳統이다. 이 兩者를 傍點 表記에 있어 同一한 一點으로 表記한 것은 崔世珍의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 依하건대 漢語의 去聲이 國語의 去聲과 同一하고, 陰平이 國語의 去聲과 서로 비슷하다는 觀察에 由來하거니와, 18世紀末 乃至 19世紀初의 中國語聲調의 表記에서까지 兩者가 區別 없이 적히고 있는 것이 아직도 發音上의 相似에 基礎한 것이었는지, 또는 單純히 表記 傳統에 얽매어 그렇게 되고 있는지는 分攔하기 어렵다.<sup>(5)</sup> 오늘날의 北京 官話에서처럼 陰平의 實現이 55요 去聲이 51로 發音되었다면 兩者를 同一表記로 묶는다는 것은 어려웠겠기 때문이다.

이것을 것으로 생각된다.

老乞大의 藍點, 墨點과 崔世珍의 表記의 唯一한 差는 加點을 右側에 하느냐 左側에 하느냐 하는데 있었다.

- (3) 괄호 안의 面數 表示는 重刊老乞大를 基準으로 한 것인데, 이는 筆者가 重刊老乞大 텍스트에 移點한 資料를 使用한 데 말미암는다.
- (4) 兩姨의 姨字는 第2聲이어야 할 것이나 모두 第1聲으로 表記되어 있는데, 一種의 tone-sandhi를 反映한 것인 듯 하다.
- (5) 崔世珍의 中國語 聲調 表記에 대하여는 拙著, 中世國語 聲調의 研究, 韓國文化研究叢書 11(韓國文化研究所 1973) 9-16을 參照.

崔世珍에 依하면 (6) 漢音의 去聲은

漢音去聲之呼直而高 興同國音去聲相同

이라 있어 그 音高는 55 程度로 想定되며, 陰平에 대하여는

輕呼而稍舉

라 있어 45 程度의 音高를 想定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兩者를 一點으로 同一處理한 崔世珍의 態度는 十分 理解가 가는 것이요, 崔世珍의 證言을 믿는 限에 있어서는 中國語의 第一聲과 第四聲은 十六世紀 以後 現代에 이르는 어느 時期에 各各 45>55, 55>51의 調值 變化를 入었을 것을 推定할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重刊老乞大諺解의 聲調 表記에서 一旦은 이러한 變化의 結果로 兩者가 區別 表記되었기를 期待해 봄직한 것인데, 朱點에 依한 聲調 表記의 實狀은 우리의 이런 期待와는 달리 第一聲과 第四聲의 區別을 두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果然 이 時期까지도 45>55, 55>51의 調值 變化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表記 傳統 때문에 前敍를 그대로 밝고 있는 것일까. 後者의 境遇라면, 두 記號를 더 써서 表記를 精密히 하려 한 姿勢로 보아 疑惑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以上에 提起한 一聯의 疑問들을 우리는 中國語 聲調史 研究者들에게 돌리려 하거니와, 陰平과 去聲의 同一 表記를 包含한, 傍點에 依한 中國語 聲調 表記의 傳統의 持續 속에 우리나라 語學史에 있어서의 崔世珍의 位置를 再確認하는 것으로 自足하려 한다.

四聲通攷 以來의(或은 그 前부터인지도 모르지만), 傍點法은 平聲 無點, 上聲 二點, 去聲 入聲 一點의 調類 中心의 方法이었다. 이것을 崔世珍은 正音 表記에는 維持하면서도, 俗音을 表記함에 있어서는 調值 中心으로 改編하여 國語 聲調의 調值에 立脚하여 上聲 無點, 陽平 二點, 陰平 去聲 一點의 새 體系를 創造해 냈던 것인데, 重刊老乞大諺解의 朱點 表記는 崔世珍에 비롯된 中國語 聲調 表記 傳統이 譯學者들 사이에서 忠實히 繼承되어 온 것임을 알게 한다. 聲調를 除外한 字音表記에 대하여는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新釋朴通事諺解, 重刊老乞大諺解 등을 通하여 崔世珍이 創始한 正·俗音 並記의 傳統이 繼承되었음을 보아 왔거니와, 이들 文獻은 聲調表記가 廢止된 以後의 것들이어서 聲調에 關한 表記法이 어떻게 되었는지, 印刷된 文獻들을 通하여는 알아 볼 수 없던 것인데, 朱點本 重刊老乞大諺解의 存在로 하여 聲調 表記도 例外는 아니었음을 確認할 수 있는 것이다.

要컨대, 崔世珍의 著述은 이 땅의 漢語學의 規範을 이루어 三世紀 以上에 걸쳐 譯學者들을 支配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6) 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四聲通解 附載) 漢音條

## III

朱點本 重刊老乞大諺解에서 처음 對하게 되는 두 記號가 具體的으로 어떠한 音價를 나타내는 것이었는가하는 것은 쉽게 對答할 수 있는 問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 記號들이 쓰인 實際 文例를 汚損이 적은 部分에서 提示하거나, 表記의 便宜를 爲하여 허리가 꺾인 記號를 X로 갈구리形의 것을 Z로 나타내기로 한다. 羅馬字들 가운데서 外貌가 가장 가깝게 여겨지는 것들일 뿐만 아니라 未知의 두 項을 指稱하기에 알맞는 選擇이라고 생각한다. [無點 即 左加一點은 0로, 一點 (右加的 것으로 陰平과 去聲에 該當)은 1로, 二點은 2로 表示한다. □는 墨點에 가리어 確認할 수 없는 곳.]

<sup>1 1 1 0 1</sup>  
 這三箇火伴  
<sup>1 0 1 Z 2</sup>  
 是你親眷麼  
<sup>Z 0 Z X 1 1</sup>  
 與你同系的啊  
<sup>1 1 X 1</sup>  
 都不會問  
<sup>1 Z 2</sup>  
 姓甚麼  
<sup>1 1 1 1</sup>  
 這箇姓金  
<sup>Z 0 Z 0 1 1</sup>  
 是我姑舅哥哥  
<sup>1 1 Z 0</sup>  
 這箇姓李  
<sup>Z 0 0 □ 1 1</sup>  
 是我兩姨兄弟  
<sup>1 1 Z 0</sup>  
 這箇姓趙  
<sup>Z 0 □ □</sup>  
 是我街坊  
<sup>0 1 1 1 Z 0 1 1</sup>  
 你既是他姑舅弟兄  
<sup>X 1 Z 0 1 Z 0</sup>  
 誰是舅舅的兒子  
<sup>X 1 1 1 1 Z 0</sup>  
 誰是姑姑上兒子  
<sup>0 1 Z 2 1 1</sup>  
 我是姑娘生的  
<sup>1 Z 0 Z 0 0 1</sup>  
 他是我舅舅養的  
<sup>0 1 0 1 1 1</sup>  
 你這兩姨弟兄  
<sup>1 1 0 1</sup>  
 是親兩姨  
<sup>1 1 X 1 0 1</sup>  
 却是房分兩姨  
<sup>1 1 □ 1 1 1</sup>  
 是親兩姨弟兄  
<sup>0 0 1 1 Z 0</sup>  
 我母親是姐姐  
<sup>1 0 1 1 Z 0</sup>  
 他母親是妹子  
<sup>0 1 1 1 Z 0 0 1 1 1</sup>  
 你們既是姑舅兩姨弟兄  
<sup>0 2 □ 1 1 Z 0 Z 2</sup>  
 怎麼沿路上多有戲言

0 1 1 1 Z 0 Z 2  
我們不會體例的人  
1 1 1 1 X 1  
又是路上閒話  
Z 1 Z 2 0 Z 0  
自然不能回避了

X 1 X 1 0 Z 2  
咱們閒話且休說  
1 Z X 1 1 1 0 1  
那前頭的便是瓦店  
X 1 0 1 1 Z 2 1 1  
尋箇好乾淨店房住下  
Z 2 Z 0  
歇息牲口

Z 1 1 1 Z 0  
街北這箇店子  
Z 0 1 0 X 1  
是我舊主人家  
X 1 1 1 Z 0 1  
咱們就到那裏下  
0 X 1 1 Z 0  
主人家拜揖了  
1 X 1 1 Z 0 2  
暖王大哥來了麼

1 Z 0  
久違了

0 1  
好啊

0 Z 0 1 0 1  
你這幾箇火件

2 0 1 Z X 1  
從那裏同來的

1 1 0 1 1 1  
這是我沿路上

1 0 1 Z 2 0 X 1 1  
做火件一同姓北京的

0 1 Z 0 0 1 Z 0 Z 0  
你這店裏草料都有沒有

0 1 Z 0  
草料都有

1 1 Z 0 0 1 Z 0  
料是黑豆草是秆草

1 Z 0 1  
這秆草好

X 1 Z 0  
若是稻草

Z 0 Z 0 1 1 1  
牲口多有不喫的

Z 0 Z 0 Z 0  
黑豆多少一斗

0 Z 0 Z 0  
草多少一細

Z 0 0 1 Z 2 Z 0  
黑豆五十箇錢一斗

0 1 Z 2 Z 0  
草十箇錢一細

1 1 Z 2  
是實價麼

1 1 Z 0  
不要說謊

1 1 2 Z X 2  
大哥說甚麼話

0 1 Z 0 1  
你是熟主顧

X 1 Z 0 1 1 1 Z 2 1 1  
咱們與你便是自家人一般

0 Z 0 Z 0  
我怎敢說謊

<sup>0</sup> <sup>2</sup> <sup>1</sup> <sup>1</sup> <sup>0</sup> <sup>1</sup> <sup>Z</sup> <sup>2</sup>  
 你若不信我的話麼  
<sup>1</sup> <sup>X</sup> <sup>1</sup> <sup>Z</sup> <sup>0</sup> <sup>1</sup> <sup>1</sup> <sup>1</sup>  
 到別箇店裏問問去  
<sup>1</sup> <sup>1</sup> <sup>Z</sup> <sup>0</sup> <sup>1</sup> <sup>Z</sup> <sup>0</sup>  
 看是說謊不說謊  
<sup>0</sup> <sup>1</sup> <sup>1</sup> <sup>Z</sup> <sup>2</sup>  
 我只這麼說

위에 보인 것은 重刊老乞大로 처서 第六張 前面 第九行으로부터 第七張 前面 第八行까지에 이르는 두 段落의 對話들을 原文의 句讀點에 따라 區分하여 羅列한 것인데, 이 文例들에서 우리는 매우 興味 있는 分布上의 特徵을 發見케 된다. X와 Z가 둘 다 句節末에 놓이는 일이 없다는 事實인데, 이것은 위에 보인 部分에서의 偶然의 結果가 아니라 朱點本 重刊老乞大諺解 上·下卷 全體에 걸치는 現象으로 보인다.

이 事實은 于先 X나 Z가 中國語學에서 이르는 輕聲과는 關係가 없겠다는 것을 示唆한다. 實際로 輕聲으로 되었을 범한 ‘子’字(例: 妹子)에 嚴然한 實點이 찍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X, Z의 어느 것이 輕聲을 表記하였을 可能性은 排除되는 것이다.

句節末에 X나 Z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事實은 오히려 이들이 一種의 變調(tone-sandhi)의 結果를 反映하였을 可能性이 있음을 보여 준다. 中國語의 變調에 있어서는 連續되는 音節들에서 最終音節 아닌 다른 音節들에 變調의 結果가 示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假令 같은 呼氣段落 안에서 두개의 第三聲이 連續될 때 앞의 것이 第二聲 비슷하게 發音되는 것은 그 좋은 例가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X및 Z의 用例들을 觀察해 보면 매우 興味 있는 事實들이 發見된다.

第三聲 即 陽平의 連續에서 結果되는 變調은 崔世珍이 이미 證言하고 있고, 또한 翻譯老乞大 같은 곳에서의 字音 表記(勿論 俗音 表記)에도 反映되어 있는 것이거니와,

<sup>0</sup> <sup>2</sup> <sup>1</sup> <sup>2</sup> <sup>2</sup> <sup>1</sup> <sup>1</sup>  
 我從高麗王京來 (翻譯老乞大 上 1a)  
<sup>2</sup> <sup>0</sup> <sup>2</sup> <sup>1</sup> <sup>1</sup>  
 我往北京去 (上同)

에서 같은 ‘我’字의 俗音 表示에 있어 한쪽은 無點 또 한쪽은 二點을 配하고 있음을 본다. 前者의 境遇는 第二聲인 ‘從’字 앞에서 ‘我’가 本來의 第三聲으로 維持된 것인데 대하여 後者에 있어서는 같은 上聲字인 ‘往’의 後續을 받아 ‘我’가 陽平으로 바뀐 것을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上聲字가 連續되어 생기는 變調의 자리에 Z를 보여 주는 것이 우리의 朱點本이다.

<sup>0</sup> <sup>2</sup> <sup>0</sup> <sup>0</sup> <sup>0</sup> <sup>Z</sup> <sup>2</sup>  
 我從朝鮮王京來  
<sup>Z</sup> <sup>0</sup> <sup>0</sup> <sup>1</sup> <sup>1</sup>  
 我往北京去

崔世珍이 ‘我有一箇火伴落後了來’의 ‘我有’에 대해서는 變調를 認定하지 않은 것과는 對

照的으로 朱點本은 이 境遇에도 Z를 보여 준다. 我有一箇朋友落後了  
이 範疇에 屬하는 例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보인다.

<sup>Z 0</sup>  
 姐姐  
<sup>Z 0</sup>  
 我恁敢說謊  
<sup>Z 0</sup>  
 我也就完了  
<sup>Z 0</sup>  
 早修起了  
<sup>Z 0</sup>  
 今年就在牢裏死了  
<sup>Z 0</sup>  
 只用繩桶打水  
<sup>Z 0</sup>  
 你有甚麼主見  
<sup>Z 0</sup>  
 我也往北京去  
<sup>Z 0</sup>  
 你往京裏去  
<sup>Z 0</sup>  
 也有些利錢麼  
<sup>Z 0</sup>  
 又買了這幾匹馬  
<sup>Z 0</sup>  
 可以到

다만 ‘舅舅’ 같은 例의 混在가 보여 異色の인데, ‘舅’字가 本來 上聲이였음은 틀림 없지 만, 濁上歸去의 範疇에 들어 去聲으로 變하였을 存在인데도, 上聲을 維持시켜 變調까지 보 이고 있는 것이다. (翻譯老乞大는 이 單語를 舅舅 卽 去聲의 連續으로 製記하고 있다.) 朱點本은 ‘姑舅’에서도 ‘舅’字를 上聲으로 表記하고 있으므로 ‘舅舅’만이 錯誤에 依한 것이 라고는 할 수 없다. 或 表記의 基準이 된 方言의 어떤 特色에 依하는 것이나 아닐지 모르 겠다.

그러나 위에 보인 例들을 通하여 Z의 出現이 上聲 連續에서의 變調의 자리라는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그것을 二點으로 處理한 崔世珍과는 달리 二點과 區別하여 적은 것은 注目 할만한 일이다. 現代中國語의 觀察者들이 第二聲으로 變한다고 하기보다는 第二聲 비슷하 게 發音된다고 말하는 것을 想起케 하는 表記 態度다.

따라서, 假令 陽平의 當時 音價가 現代 北京音처럼 35라고 假定한다면 Z로 表象되는 音價는 34 또는 45와 같은 것이었을 것으로 想定된다. 그러므로 Z 記號는 音韻論的 次元을 넘어서서의 音聲의 轉寫의 테두리에 들 存在인 것으로 判斷된다.

다음으로 우리가 注意할 것은 Z가 上聲의 變調 表記만을 爲해서 쓰인 것은 아니라는 事實이다. Z로 轉換시켜 表記된 것에는 上聲字 以外에 陰平, 陽平, 去聲字가 다 들어 있다. 卽 上聲 以外의 다른 聲調들도 特定한 環境下에서 Z로의 實現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다 음의 두 句節을 對比시켜 보자.



<sup>1</sup> <sup>1</sup> <sup>1</sup>  
這箇姓金  
<sup>1</sup> <sup>1</sup> <sup>Z</sup> <sup>0</sup>  
這箇姓李

去聲字인 ‘姓’이 上聲 앞에서는 Z로 變調된 것을 말해 준다 할 수 있다. 그런데 變하는 자리도 꼭 上聲 앞이라고 못박히는 것은 아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例들이 보이고 있다.

- |     |                                 |   |   |                                 |                                 |
|-----|---------------------------------|---|---|---------------------------------|---------------------------------|
| (1) | <sup>Z</sup> <sup>0</sup><br>姑舅 | <sup>Z</sup> <sup>0</sup><br>一斗               | <sup>Z</sup> <sup>0</sup><br>多少               | <sup>Z</sup> <sup>0</sup><br>喂馬 | <sup>Z</sup> <sup>0</sup><br>勞苦 |
|     | <sup>Z</sup> <sup>0</sup><br>兒子 | <sup>Z</sup> <sup>0</sup> <sup>2</sup><br>來了麼 | <sup>Z</sup> <sup>0</sup><br>沒有               | <sup>Z</sup> <sup>0</sup><br>人馬 |                                 |
| (2) | <sup>Z</sup> <sup>2</sup><br>不能 | <sup>Z</sup> <sup>2</sup><br>休說               | <sup>Z</sup> <sup>2</sup><br>房錢               | <sup>Z</sup> <sup>2</sup><br>甚麼 | <sup>Z</sup> <sup>2</sup><br>客人 |
|     | <sup>Z</sup> <sup>2</sup><br>一同 | <sup>Z</sup> <sup>2</sup><br>猪肉               | <sup>1</sup> <sup>Z</sup> <sup>2</sup><br>三箇人 | <sup>Z</sup> <sup>2</sup><br>如何 | <sup>Z</sup> <sup>2</sup><br>貨物 |
| (3) | <sup>Z</sup> <sup>1</sup><br>壯漢 |   |   |                                 |                                 |

Z가 주로 第二聲과 第三聲 앞에서의 變調인데 比하여 X는 이른바 擧字 앞에서의 變調라는 區別을 보인다. 그 典型的인 境過로 우리는 ‘來’字를 들 수 있는데, 正常的으로 發音되는 位置에서 二點을 示顯하는 ‘來’가 第二聲 및 第三聲 앞에서는 Z로 擧字 앞에서는 X로 實現되고 있음을 본다

<sup>Z</sup> <sup>2</sup>  
來來 (8b)  
<sup>Z</sup> <sup>0</sup>  
來了 (8b)  
<sup>X</sup> <sup>1</sup>  
來的 (1a)  
<sup>X</sup> <sup>1</sup>  
來啊 (2b)

이 對比에서 우리는 X가 Z보다 音高가 높지 않았나 하고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陽平이나 上聲은 낮은 데에서 시작되는 가락인데 反하여 陰平이나 去聲은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Z나 X의 出現이 一種의 同化作用의 所致라면 X를 Z보다 높게 想定하는 것은 妥當한 일일 것이다. X를 보이는 例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1</sup> <sup>X</sup> <sup>Z</sup> <sup>2</sup> <sup>Z</sup> <sup>2</sup> <sup>1</sup> <sup>Z</sup> <sup>2</sup>  
朝鮮 (朝鮮話 朝鮮人, 中國 中國人)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Z</sup> <sup>X</sup> <sup>1</sup> <sup>0</sup> <sup>X</sup> <sup>1</sup> <sup>Z</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Z</sup> <sup>X</sup> <sup>1</sup> <sup>0</sup> <sup>X</sup> <sup>1</sup>  
朝廷, 咱們, 門戶, 北京, 十分, 賊們, 無人處, 主人家, 常言道, 肥的, 別處, 前頭的, 小紅的,  
<sup>0</sup> <sup>2</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sup>2</sup> <sup>X</sup> <sup>1</sup> <sup>2</sup> <sup>X</sup> <sup>1</sup> <sup>Z</sup> <sup>X</sup> <sup>1</sup> <sup>Z</sup> <sup>2</sup> <sup>X</sup> <sup>1</sup> <sup>0</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Z</sup> <sup>0</sup> <sup>X</sup> <sup>1</sup> <sup>X</sup> <sup>1</sup>  
(小紅), 涼花, 八分, 還是, 皮頭的, 略略的, 甚麼書(甚麼) 如今, 五六日, 六箇馬, 王京, 肉案

X가 Z보다 높았다면 얼마나 忒로 달랐을까. 이것은 아직 充分한 論據를 대어 考證될 수 없는 것이지만, 陽平을 35로 할 때 그리고 陰平을 55로 假定할 때 X: 45, Z: 34 程度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IV

重刊老乞大諺解 朱點本이 어떻게 해서 成立되었는지 잘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우리 先人들이 남긴 하나의 警異的 業績인 것만은 틀림 없다. 加點의 過程이 中國人을 相對로 한 客觀的인 作業이었는지, 아니면 어느 譯官의 單獨作業이었던지도 確實히 알 수 없는 處地이지만, 外國語의 發音을 記錄함에 있어서 더구나 聲調에 대해서, 音素의 次元을 넘어서 音聲的 精密性을 겨냥한 記錄을 보여 주었다는 點에서 이 資料는 매우 注目할만한 存在라고 믿는다.

筆者는 이 朱點本の 認知에 依해서 崔世珍이 세운 中國語音 轉寫의 傳統이 聲調에 이르기까지 三世以上 그 權威를 維持했음을 確認할 수 있었거니와 筆者가 任意로 X와 Z로 轉換하여 表示한 두 記號의 存在를 이 朱點本에서 發見함으로써, 崔世珍에 비롯된 表記體系가 그에 머크르지 않고 相當한 發展까지를 보였음을 目睹하게 되었다. 이만한 表記 資料가 있고, 이만한 發展이 確認되는 以上, 印刷된 文獻 資料에 聲調 表記를 보지 못하게 된 時期 以後에 있어서도 中國語 聲調 表記를 위해서 譯學者들이 傍點法을 繼續使用하였을 것은 疑心の 餘地없는 事實이거니와, 그렇다면 그런 表記 資料는 何必 이 朱點本 뿐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埋沒되어 있는 資料들의 調査 如何에 따라서는 이와 類似한 或은 이보다 越等한 資料가 發掘될 것을 期待하는 것은 지나친 希望이라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手澤이 묻고 지저분하게 注記가 加해지고 한 책들은 보는 사람을 不快하게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 책을 利用했던 先人들의 認識의 자취를 生生하게 보여 준다는 點에서 매우 貴重한 存在라고 하여야겠다. 이 朱點本에는 判讀하기 어려운 藏書印이 찍혀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이 책이 本來 어느 個人의 所有이던 것이 어떤 經緯에선지 奎章閣藏書에 合流되어 傳해 오게 된 것을 말해 주는 것 같다. 지금은 確認할 수 없게 된 한 譯學者에 依해서 朱點이 加해진 이 책은 같은 重刊老乞大諺解의 한 複本이 아니라 別個의 著書로서의 價値를 지닌다 할 수 있다.

筆者가 보기에 朱點에 依한 中國語 聲調 表記는 매우 誠實하며 또한 精密하게 된 作業인 것 같다. 그 안에 登場하는 두 種類의 記號에 대해서 筆者는 變調의 結果를 表示한 것이라 推定하면서, X가 Z보다 높은 가락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表明하였다. 다만 陰平과 去聲이 아직도 分立되지 않고 一點으로 統一表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무어라고 그 理由를 斷定할 수가 없었다. 이만큼 精密화된 表記에서라면 宜當 分立이 行해졌을 듯하고, 左加右加의 兩刀를 휘두른 以上 符號가 不足하지도 않았을 터인데도 兩者가 區別된 것 같지 않은 것은 아쉽게만 느껴지는 一面이다.

이 一連의 問題들을 包含하여 中國語學 쪽에서의 評價는 지금의 筆者가 깊이 干與할 것은 못되지만, 崔世珍의 翻譯老乞大나 翻譯朴通事에 못지 않게 重要한 貢獻을 할 수 있는 中國語 聲調史 資料일 것만은 確認하여도 좋을 줄안다.